



전도서 10장 1절 이해와 그 현대적 교훈: 위기사회와 지혜

오민수(대신대)

1. 들어가는 말

일제강점기와 민족의 동란 이후 우리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건인차 역할을 한 것 중에 으뜸은 한국민족이 가진 남다른 교육열일 것이다. 경제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우수한 재원들이 배출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아련한 공상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교육을 중시하는 풍토는 세계가 칭찬할 만한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옛 현인들의 격언이 있듯이 작금의 교육현실은 교육과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적으로 경제사회에 발맞춘 교육은 경쟁사회의 구도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났다. 또한 개별 가정의 과대한 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가정의 균형

www.kci.go.kr

있는 살림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정경제 안의 교육비 부담은 자연적으로 저출산과 사회 전체인구 감소¹⁾라는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2020년에 이르면 대학입학 정원보다 입학대상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우울한 보도에 사회뿐 아니라 교육계도 요동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구감소라는 부정적인 요인과 더불어 부인할 수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돌입은 미래 한국사회를 위기사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현금(現今)의 과도한 교육열이 추구하는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 지향적인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필자의 본 소고는 지혜문학에 속한 전도서의 가르침을 반추해보며 한국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용어는 생활의 지혜만 뜻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형태로서의 지혜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오늘날의 지식, 기술, 교육철학이나 기조에 상응하는 개념이다.²⁾ 전도서 연구자들은 전도서의 지혜를 ‘위기의 지혜’³⁾ 또는 ‘비평적인 지혜’⁴⁾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에 따른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 사이의

1) 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3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9%,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1%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율만으로 볼 때, 아직은 유럽이나 일본의 고령화를 16-18%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다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노인인구비율 7%의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서 14%의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전되는데 걸리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를 보면,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이고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일본이 24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와 환경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더구나 일반 국민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령사회를 맞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Melanie Köhlmoos, "Weisheit/Weisheitsliteratur II", in TRE 35(2003), 486ff.

3) Thomas Krüger, *Kritische Weisheit: Studien zur weisheitlichen Traditionskritik im Alten Testament* (Zürich: Pano-Verg., 1997), 173-194.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82-104.

4)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281-308.

균열과 불일치에서 비롯된다.⁵⁾ 가령,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 되받는 것이 그 이치이지만, 혼란스러운 사회는 사람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비교. 전 9:11이하). 이러한 전도서의 시대적 배경은 자격증을 두루 갖춘 인재들과 고등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작금의 한국사회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혜서 연구자들은 전도서를 ‘위기문학’으로 분류한다.⁶⁾ 그 위기란 단지 교육의 기대효과적인 차원에서의 위기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부조리(비교. 전 4:1이하; 5:8이하)와 정치적인 혼란(비교. 전 4:13이하; 9:13이하; 10:16이하) 역시 한 몫을 담당하였다. 전도서의 사회적 현실이 자아내는 정치적 상황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역시도 분단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태와 주변 나라들 간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에 교육 분야 역시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위기시대의 지혜문학의 교육적인 성찰을 연구하는 학문적 작업은 현금(現今)의 우리가 봉착한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전도서 9장 13절-10장 20절은 ‘지혜의 강점과 그와 동시에 취약점’⁷⁾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10장 1절은 9장 13절-15절에 실례로 이야기 된 에피소드를 현장감 있는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인 이미지 언어로 요약해 주고 있어, 교

5) Minsu Oh, *Sprachliche Gestaltung und Semantik-Untersuchungen zu den biblischen Bchern Proverben und Kohelet*, Kieler Theologische Reihe (Münster: LIT, 2014), 13-14.
 6) James L. Crenshaw, *Ecclesiastes*,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49-51.
 7) 참조 및 비교. Cheun-Leong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London: Yale University, 2008), 312; Thomas Krüger, *Kohelet (Prediger)*, BK XIX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319-320; Roland Murphy, *Ecclesiastes*, WBC 23A (Dallas: Word Books, 1992), 99.

육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후 국역과 고대역, 그리고 현역에서 살펴보겠지만 - 본 구절은 해석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구절이다. 본고의 필자는 여러 역본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전도서 10장 1절의 다양하고 풍성한 이해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고전히브리어 동사구문과 의미론, 그리고 어의의 변천에 합당한 필자의 번역을 제시할 것이며, 전도서 10장 1절의 전후 문맥을 고찰하여 그 메시지를 다시 되새겨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전도자가 현대 독자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되새겨 볼 것이다.

2. 본론

1) 전도서 10장 1절의 구절 이해

(1) 국역 번역들의 비교

전도서 10장 1절의 히브리어 BHS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זְבוּבֵי מוֹת יִבְאִישׁ יָבִיעַ שָׁמֶן רוֹקַח 1a	x-yiqtol, yiqtol
יָקַר מִחֲכָמָה מִכְבוֹד סְכָלוֹת מָעַט 1b	NS

전 10장 1절은 히브리어 모음이 표기된 이래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왔다. 이러한 번역의 다양성은 본 구절을 번역한 국역성경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 | | |
|--------|---------------------------------|
| a) | 1a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약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
| [개역개정] | 1b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

- b) 1a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약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개역한글] 1b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 c) 1a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약취가 나게 하듯,
 [표준새번역] 1b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영예를 더럽힌다
- d) 1a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공동번역] 1b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a)에서 d)까지의 4 개의 국역성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절 상반절과 1절 하반절을 비교의 문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 개의 국역 간의 내용상의 차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a)와 b)는 1절 상반절의 이해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으나, 1절 하반절에 ‘적은 우매’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한다. a)의 1절 하반절에서 ‘적은 우매’는 지혜와 존귀로 하여금 난항을 겪게 할 뿐이지만, b)의 1절 하반절에서 ‘적은 우매’는 지혜를 패하여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실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다. 이러한 b)의 하반절에 대한 이해를 d)는 관용적인 어법(‘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으로 가시화시켜 주고 있다면, 이 보다 절제된 번역인 a)의 하반절(‘난처하게 만든다.’)은 c)하반절의 내용(‘영예를 더럽힌다.’)과 어느 정도 상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응점이 있는 반면, 4권의 국역 성경들이 번역한 내용이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a)와 b)에는 מִצְרֵף וְעֵץ (씨크루트 메아트/적은 우매)를 원문에서 사용된 추상명사 그대로 “적은 우매”로 직역하고 있다면, c)와 d)에서는 각각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의미역하여 한 가지 사건이나 행위로 구체화시켜줌과 동시에 해석의 여지를 축

소시키고 있다. c)에서는 מְעַט סְכָלוּת(씨크루트 메아트/적은 우매)를 “변
 변치 않은 적은 일”로 번역함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무심코 행하는 행동’ 내지는 ‘부지중의 실수’라 이해하여, סְכָלוּת(씨크
 루트/우매)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מְעַט(메아트/적
 은)을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번역한 d)에서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어리석은 행동 그 자체에는 큰 비중
 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d)의 번역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리 큰 비중
 을 두지 않았던 어리석은 행동은 지혜를 물거품이 되게 한 것이다. 이뿐
 만 아니라 d)의 본문 이해에 따르면 1b의 주어는 ‘적은 우매’인 ‘씨크루
 트 메아트’가 아니라 불특정하고 보편적인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이 4 개의 국역성경이 보여주는 1절 하반절의 상이한 구절이
 해의 차이는 문장의 내용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내의 문
 법적인 구성요소들 간의 이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와 b)에서
 חֲכָמָה(호크마/지혜)와 כָּבוֹד(카보드/존귀, 영예)는 병치되어 있으며 각
 각 목적격 목적어와 여격 목적어로 모두 목적어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
 다. 이와는 다르게 c)에서는 “지혜”와 “영예”(“존귀”)가 목적격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혜”의 술어는 ‘가리다’인 반면, “영예”는 ‘더럽히다’
 로 각각 다른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c)의 이해에 따르면, 맛소
 라 본문과는 다르게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어야 한다. d)의 하반절을
 살펴보면, “지혜”는 “영예”를 이룩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만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d)의 비교적 자유로운 의미역은 10a의 내용
 의 주안점을 서로 상의한 방향으로 옮겨놓고 있다. a)와 b)와 c)에서는
 מִן חֲכָמֵי וְכֹהֵנִים(제부베 마베트/죽은 파리[들])가 שָׁמַן(쉐멘/향수, 향기름)을 약
 취나게 만드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면, d)에서는 죽은 파리가 ‘향수’
 에 빠진 결과,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국역성경의 번역상의 차이는 한 구절에 대한 이해의 산물로서
 본문 이해를 풍성하게 하려는 번역자의 공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자들의 구절이해의 차이는 사본 상의 변이를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2) 전도서 10장 1절에 대한 고대역과 그 이해

국역성경의 번역상의 이해의 차이는 맛소라 본문을 이독하고 있는 고대 역본들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본 단락에서는 맛소라 본문을 처음 번역하고 (지혜)신학적으로 해설하였던 헬라어와 라틴어 고대 역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MT	זְבוּבֵי מוֹת וּבְאִישׁ וּבִיעַ שָׁמֶן רוֹקֵן יָקָר מִחֲכָמָה מִכְבוֹד סְכָלוֹת מְעַט:
	μύϊαι θανατοῦσαι σαπριοῦσιν σκευασίαν ἐλαίου ἠδύσματος τίμιον ὀλίγον σοφίας ὑπὲρ δόξαν ἀφροσύνης μεγάλης
LXX	죽음의 파리들이 향긋한 향기름 조제를 더럽게 할 것이라; 적은 지혜가 큰 우매의 영광보다 더욱 값지도다
	muscae morientes perdunt suavitatem unguenti pretiosior est sapientia et gloria parva ad tempus stultitia
VUL	죽은 파리들은 향유의 달콤함을 버리는 도다; 잠시잠간의 적은 우매가 지혜와 영광보다 더욱 값지도다

a) 칠십인 역(LXX)

칠십인 역의 번역에 따르면, 실제로 망쳐지는 것은 향기름이 아니라 향기름을 조제하는 작업이 된다. 조제라는 뜻의 σκευασία(스큐시아)는 맛소라 본문의 명사화된 분사 ῥοκεῖν(로케하/향기름 섞는 자)가 ῥοκεῖν(쉐멘/향기름)으로 수식되는 것으로 이해하였거나, 그렇지 않다면 맛소라

본문의 אֲבִיָּע (압비아/삭히다)를 אֲבִיָּע (가비아/주발, 잔)로 수정하여 읽은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칠십인역의 후반절의 주어는 맛소라 본문처럼 ‘적은 우매’가 아니라 ‘적은 지혜’이다. 이로 통해서 볼 때, 칠십인역은 우매가 지혜보다 낫다는 관계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 벌게이트(VUL)

אֲבִיָּע (압비아/삭히다)를 생략하고, 그 대신 ‘달콤함’이란 어휘를 넣어서 의역을 하였다. 후반절에 주어인 ‘지혜와 영광’(sapientia et gloria)과 술부의 동사인 est(3.m.s. esse)와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대등 접속사 et(에트/그리고)는 ‘자세히 설명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어, ‘지혜, 자세히 말하자면 영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고대라틴어 역은 맛소라 본문에는 없는 ad tempus(아드 템푸스/짧은 시간, 잠시)를 삽입함으로써 적은 우매가 더 값어치 있다고 하는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맛소라 본문에 있는 ‘기름 섞는 자’가 생략되어 있다.

c) 두 고대역의 공통적인 특징

두 고대역은 맛소라 본문과 상이한 이독(異讀)을 볼 수 있으며 전후반절의 번역에 있어서 이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전반절의 경우, 죽은(죽음의) 파리의 파괴력을 약화시켰다. 칠십인역은 죽음의 파리들이 향기를 조제에 해로운 영향을 주었다면, 벌게이트는 죽은 파리가 향유의 특성인 달콤함(달긋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두 고대 역은 모두 죽은(죽음의) 파리의 해로움을 감소시켰다. 번역자의 이러한 이해는 파리로 비유될 수 있는 ‘우매’의 영향력이 ‘향기름’으로 대표되는 ‘지혜’에 직접적인 손실을 줄 수 없음을 말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후반절의 경우, 지혜의 유용성을 보존하려 했다. 후반절에서 칠십인

역은 ‘적은 우매’ 대신, ‘적은 지혜’를 주어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벌게이트에도 나타나는데, 벌게이트는 주어를 ‘적은 우매’에서 ‘적은 지혜’로 교체하는 대신 히브리 본문에 ad tempus라는 시간부사를 첨가하여 ‘적은 우매’의 유용성을 잠시인 것으로 제한시키고 있다.

위의 이해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두 고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문장을 재해석함으로써 본문이 자아내는 우매의 긍정적인 평가를 제거하였다.

(3) 전도서 10장 1절에 대한 현대역과 그 이해

구역과 고대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서 10장 1절의 번역과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대 대표적인 번역의 경향들은 어떠할까?

프랑스어 공동번역(FOB, 1988)

1a Des mouches mortes infectent et font fermenter l'huile du parfumeur.

1b Un peu de sottise p se plus que la sagesse, que la gloire

(죽은 파리들은 향장사의 향수를 더럽히고 삭히도다; 적은 우매가 지혜보다 명성보다 더 무게 있도다)

영어표준번역 (ESV, 2001)

1a Dead flies make the perfumer's ointment give off a stench;

1b so a little folly outweighs wisdom and honor

(죽은 파리들은 향장사의 향수에 악취가 나게 하도다; 이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명성보다 더 세력 있도다)

개정 루터역(LUT, 1984)

1a Tote Fliegen verderben gute Salben.

1b Ein wenig Torheit wiegt schwerer als Weisheit und Ehre

(죽은 파리들이 좋은 향기름을 망치도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명성보다 더 무게 있도다)

1절 상반절 이해에 있어서, 현대어 번역인 FOB는 맛소라 원문에서

처럼 두 개의 동사, וּבְאִישׁ (압비이쉬)와 וּבִיַּע (압비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ESV와 LUT는 ‘삭히다’라는 의미의 동사, וּבִיַּע (압비아)를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ESV는 ‘냄새나게 하다’를 ‘악취’가 나는 것으로 강하게 번역하고 있다. ESV를 제외한 나머지 번역인 FOB와 LUT는 1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이처럼’이란 부사를 통해서 비교의 문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1절 하반절 이해에 있어서, FOB의 ‘지혜보다, 명성보다’에서 명성은 지혜를 구체화시켜주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ESV, LUT에서는 ‘지혜와 명성’이라는 두 가지 사실로 번역하고 있다. FOB, ESV, LUT의 번역들은 고대역본들과는 달리, 문자적인 번역에 충실하려 하였다. 다만, 상반절을 한 개의 동사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동사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하반절에 지혜와 존귀를 개별적인 두 개의 사실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가지 사실로 이해할 것인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하반절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후의 국역번역들, a) [개역개정], b) [개역한글], c) [표준새번역], d) [새공동번역]을 히브리어 구문론과 의미론을 중심으로 맞소리 원문과 비교 대조하여 어의변천사를 살펴본다면 어떠한 경우로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לְחַקֵּן לְחַקֵּיָּהּ אִלּוּ זְבוּבֵי מִוֹת וּבְאִישׁ וּבִיַּע שָׁמֵן רוֹקֵחַ
 כֵּן בִּלְיָקָר מִחֶכְמָה מִכְבוֹד סִבְלוֹת מֵעַט

- 1a 죽은 파리들은 제각기⁸ 기름 섞는 자의 향기름을 냄새나고 삭히게 하는 도다
- 1b 지혜(와) 존귀보다도 적은 우매가 더욱 값지도다

a)에서 d)까지의 국역성경은 1절의 주어를 복수 מִוֹת וּבְבוּבֵי (제부베 마

메트/죽은 파리들)와 단수 מָוֹת מְבֵּיט (제불 마베트/죽은 파리)로 각각 달리 번역하고 있다. 주어를 복수로 그대로 둔 번역은 b)역이다. 단수 주어 사용은 맛소라 대주의 제안사항에 따라 이어지는 미완료동사 3인칭 남성단수 יָבִיאִי (압비이쉬/냄새나게 하다)와 주어의 수를 일치시킨 결과이다. 네 권의 국역성경 모두 BHS와 BHK의 교정제안에 따라 전 10장 1절 상반절에서 연이어 사용되는 두 개의 동사 יָבִיאִי (압비이쉬/냄새나게 하다)와 יָבִיט (압비아/발효시키다) 중에서 ‘압비아’를 사본전수 과정 중 필사자의 작업으로부터 기인되는 ‘중복오사’(dittography)⁹⁾ 또는 필사자(또는 사본전수자)의 ‘행간주석’(gloss)¹⁰⁾으로 간주하였다. 즉 사본 필사자는 첫 번째 동사인 ‘압비이쉬’에서 יָבִי (요드바브)를 기록한 후 이어지는 שֵׁ- (이쉬)를 וֵ- (이아)로 오사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중복오사에 ‘이쉬’에 사용된 자음 a(알렙)은 모음 ‘이’의 음가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된 matres lectionis(보조모음으로 사용된 자음)¹¹⁾으로 간주된다.

사본 상의 이독으로 소급해 볼 수 있는 국역성경의 번역상의 변이들은 전 10장 1절 하반절에서도 나타나는데, 국역 상의 다양한 의미의 번역인 ‘난처하게 하다’, ‘패하게 하다’, ‘더럽히다’ 등은 맛소라 본문에 해당되는 동사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맛소라를 번역했던 필사자는 전 10장 1절 하반절의 전치사 비교급인 מְבֵּיט (밋카보드)에서

8) 주어동사 사이의 수의 불일치에 대해 창 41:57(וַיִּבְרֹא אֱלֹהִים לְשֵׁבֶר אֶל־יָמֵי בָאָר מִזֶּמֶן וְיָמֵי בָאָר מִזֶּמֶן וְיָמֵי בָאָ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온 땅’(단수)은 여기서 대유법이며, ‘온 땅의 사람들’을 뜻하고, 이것을 복수형 동사로 받아 표현해주고 있다. 반면, 전 10:1a에서 ‘복수주어+단수동사’로 나타난 수의 불일치(וַיִּבְרֹא אֱלֹהִים מָוֹת מְבֵּיט)는 동사의 기능적 용법인 ‘배분의 단수’(distributive singulare)로 이해될 수 있다(GK §145, 486).

9) Immanuel Tov, *Der Text der Hebr. ischcen Bibel. Handbuch der Textkritik* (Stuttgart: Kohlhammer, 1992), 193, 195, 198.

10) Cheun-Leong Seow, *Ecclesiastes*, 312. 서우(C.-L. Seow)는 놀랍게도 맛소라 본문의 동사 *yabbā* (bubble, ferment)가 고대역 중 심마쿠스와 탈공, 그리고 라틴어 별게이트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명사 *gābīā* (vessel)로 수정하여 독법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전 10:1절 동사 ‘압비아’를 명사 *skeuas* (preparation)로 번역한 칠십인역의 이해는 헬라이어 *skeuós* (“vessel”)를 오독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11) 페이지 H. 켈리, 『성경히브리어』 (류근상 옮김),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10), 7. 원제는 Page H. Kalley, *An Introductory Grammar. Biblical Hebrew*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92), 7.

중간모음 כ(카프)를 א(알렙)으로 대치하였고, 이로 통해서 אבד(아바드/멸망하다)의 피엘형 분사 מֵאבֵד(메압베드/멸하게[부패하게] 만들다)로 수정하여 읽었던가 아니면 힝필형 분사 מֵאבֵד(마아비드/멸망시키다[부패시키다])로 독법한 결과로 소급될 수 있다.

a), b), c)의 국역에서 ‘지혜’와 ‘영광’을 히브리 본문의 어떤 부분을 참조점으로 하여 번역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d)역의 ‘지혜로 얻은 영광’이라는 번역은 히브리원문상의 이독과 사본비평의 종합임을 알 수 있다. d) 국역성경에 따라 1절 후반절을 재구성 하면 מֵאבֵד סְכָלוֹת מֵאבֵד מִחֲכָמָה יָקָר(야카르 메호크마 밋카보드 씨크루트 메아트)이다. 앞의 본문에서 ‘지혜로 얻은 영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구문은 מִחֲכָמָה יָקָר(야카르 메호크마)인데, ‘야카르’는 아람어나 성경시대 이후 히브리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광’이란 의미로 상용되었다.¹²⁾ - 일부 주석가들¹³⁾은 본 절의 ‘야카르’가 ‘비중있는’(schwerwiegend/weightier) 또는 ‘중대한’(ins Gewicht fallend/be of consequence), ‘무거운’(schwer/heavy)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d)의 번역은 필사자의 오류와 어의의 역사적인 변천을 참작하여 반영하지 않은 ‘심한 의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역성경들의 미묘한 이독들은 사본 상의 다른 이해(또는 변이)로 소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역성경의 전 10장 1절 상반절과 1절 후반절의 후반절들은 저마다 원문 구절의 주안점의 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음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Gustav H. Dalman, *Aramäisch-Neuhebräisches Handwörterbuch zu Targum, Talmud und Midrasch*, Göttingen 31938, 186f.; M. Jastrow (ed.),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et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Boorklyn: NY 1903), 392f.

13) H. Rinngrén and W. Zimmerli, *Sprache/Prediger* (ATD 16/1), Göttingen 31980, 225와 영어번역본 NRSV 등.

(4) 전 10장 1절 BHS 본문의 의미론적 이해

לְחַקֵּן לְחַקֵּיהָּ אִם זָבוּבֵי מוֹת יִבְאִישׁ יִבְיַע שָׁמֶן רוֹקֵן
 סָּ בִּי יִקַּר מִחֲכֻמָּהּ מִכְבוֹד סִכְלוֹת מַעֲט

- 1a 죽은 파리들은 제각기 기름 섞는 자의 향기름을 냄새나고 삭히게 하는 도다(x-yiqtol 화법)
- 1b 지혜(와) 존귀보다도 적은 우매가 더욱 값지도다(°NS)

1절 상반절에 사용된 ‘냄새나게 하다’와 ‘삭히다’의 어간형은 힙필이다. 사역형인 힙필어간에서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주어(동작주/agens)가 피동작주(patients)에 무엇인가를 부과하여 피동작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시키기 때문이다. 사역형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이나 동작은 주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의적인’(occasional) 성격의 것이다.¹⁴⁾ 따라서 ‘죽은 파리들이 기름 섞는 자의 기름을 냄새나게 하고 삭히는 것’은 주어의 입장에서 늘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 따라’, ‘가끔 일어나는’ 사건임을 히브리어는 어간형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사역형은 목적어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substantial)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피엘은 목적어의 입장에서 볼 때 ‘필수적인 행위’(necessity)를 표현하지 않는다.¹⁵⁾ 사역형이 목적어와 연관되는 이러한 의미론적 이해를 전도서 10장 1절 상반절에 반영을 하면, ‘기름 섞는 자의 향기름’(רִיחַ שֶׁמֶן/‘쉐멘’)은 그 향기름의 특징상 쉬이 부패되어 악취를 풍기게 된다. 따라서 부패

14) Jenni Ernst, "Faktiv und Kausativ von אָבָּ zugrunde gehen". Jenni Ernst (ed.),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 (Stuttgart: Kohlhammer, 1997), 11–24.
 15) Ibid.

와 악취의 과정은 주어인 ‘죽은 파리’가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는 잘 섞인 고급의 향기름의 속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임을 말하고 있다.

동사의 구문론적 측면에서 1절 상반절은 we-x-yiqtol의 ‘화법적(modal) 용법’¹⁶⁾을 사용하고 있다. yiqtol의 미래적인 함의는 화법적인 의미를 부차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동사의 화법적 용법은 미래의 실행될 시점이나 ‘사건의 빈도’(단회성 또는 다회성)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잠재적인 실현가능성’(potentiality)에 비중을 두고 있다.¹⁷⁾ 따라서 이러한 1절 상반절의 동사구문론적 특징을 살펴볼 때, 향기름에 미칠 죽은 파리의 위험성은 잠재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써, 본 문장은 미래에 일어날 100% 확실한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위협을 대비하게 하는 ‘경고적인 형태의 진술문’임을 알 수 있다.

1절 하반절에서 비교의 ‘민’(יָמִי/‘보다’)용법을 생략하면, 하반절의 문장은 ‘자격(qualification)의 명사문’¹⁸⁾인 ‘야카르 씨크루트 메아트’(אֲכָרָה סִיכְרוּת מֵאֵת / ‘적은 우매가 귀하다’)라는 문장만 남게 된다. 이는 적은 우매가 고유한 의미에서 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나 목적 하에서 ‘지혜(와) 존귀’보다 더욱 값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뜻한다. 따라서 1절 하반절의 구문은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적은 어리석음’의 속성적인 탁월함이나 어리석음의 가치의 항구성을 뜻하지 않는다.¹⁹⁾

마지막으로 전도서 10장 1절에서 1절 상반절과 1절 하반절은 비교

16) Rüdige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Mit einem Anhang Biblische Aramäisch*, (Zürich: Theol. Verl., 1994), 105–106.

17) Ibid., 84, 205–207.

18) Rüdiger Bartelmus, *Einführung*, 45.

19)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Kohélet*, HThKAT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2004), 483는 ‘지혜와 존귀 보다 적은 우매가 더욱 비중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적은 우매’가 경우에 따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급을 나타내는 표시인 ㄱ(케/~처럼), ㄴ(켄/이와 같이)이나 ㄱㄱ(카카/이와 마찬가지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반절과 하반절은 ‘비접속사 구문’(asyndeton)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도서의 관찰자는 직업세계에서 발견될 법한 잠재적이고 위협적인 상황(1a)과 적은 우매의 더 나은 가치(1b)를 나란히 병치(parataxis)하고 있다. 따라서 두 구문 중 1절 상반절은 직업세계 관찰에서 도출된 잠언이라면, 1절 하반절은 이를 이해시켜 주는 ‘설명적 해설’(explication)²⁰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5) 전 10장 1절의 구문론과 의미론적 이해와 요약

죽은 파리가 지나는 부패적인 속성의 파괴적인 힘은 ‘잠재적인 위협’의 형태로 있으며,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 위에 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야기되는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고급 향기름이란 그 자체의 속성이 촉매제가 되어 향기름을 삭히게 함을 알 수 있다. 1절 상반절의 구절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기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경고적인 형태의 잠언’임을 동사구문론과 동작상으로 살펴본 동사의 의미론은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1절 상반절의 동사구문론적이고 의미론적인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정적인 것(죽은 파리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내나, 긍정적인 것(향기름) 역시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직업세계의 관찰은 1절 하반절의 ‘어리석음’과 비교되는 ‘지혜(와) 존귀’에도 역시 해당된다. 일반적인 경우,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위로 평가되며 이웃이나 사회에 나쁜 영향이나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지혜(와) 존귀’는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혜(와) 존귀’가 ‘어리석음’만 못하고, 오

20) Rüdiger Bartelms, *Einführung*, 200.

히려 ‘적은 어리석음’이 유용하며 ‘지혜(와) 존귀’ 보다 더 값지게 사용되게 된다. 많은 어리석음과 달리 ‘적은 어리석음’은 지혜와 존귀를 숙성시켜 줄 만한 것으로 그 유용성을 추천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전도서 10장 1절 상반절에 반영해 본다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삭히는 것은 단지 부패하여 ‘망치는 것’(verderben/spoil, perish)을 의미하기보다는 전혀 뜻밖의 효과로서 향기름을 ‘발효’(gären/ferment[bubble])시킬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²¹⁾ 그렇기에 1절 상반절의 ‘압비아’(עֲבִיָּא)를 절대 부정적인 ‘썩히다’라는 의미보다는 중립적인 의미에 ‘삭히다’²²⁾라는 용어로 번역함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사역형 ‘압비아’는 잠언 1장 23절(“보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과 시편 19장 3절(“날은 날에게 말하고”)에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게시전달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절을 지혜적인 비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압비아’는 ‘삭히는 것’ 뿐만 아니라 ‘썩히는 것’을 뜻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발효의 과정 역시도 ‘썩히는 것’과 동시에 ‘삭히는 것’이다.

따라서 전 10장 1절은 ‘적은 우매’일 지라도 일정의 ‘유용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사려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지혜’는 파리가 기름에 빠뜨려져 죽을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참작하지 못했던 기름 섞는 자의 향기름에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혜(기름 섞는 기술)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약간의 우매함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도서 10장 1절을 근접해서 읽어본다면,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성’(adequateness)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적절한 지혜의 사용이란 ‘지혜사용자의 절제력’(self-control)

21) ‘발효 향(기름)’은 원액기름보다 착용감이 가볍고 산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백오일의 발효에 관하여,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48487> 를 참조하라!

22) Thomas Krüger, *Kohelet*, 319–320. 클뤼거는 본 절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만을 취하여 본 구절을 ‘지혜의 약함’(또는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혜의 자기자제력의 측면에서 ‘적은 우매’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을 전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도서 10장 1절은 지혜가 지혜답게 사용되기 위하여 지혜가 그 주변의 환경에 ‘적응적인 조화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 이러한 조화적 능력이란 다름 아니라, 삶을 다스리며 형사를 형통케 하는 지혜의 지혜다운 면모라 할 수 있다.

2) 더 넓은 본문의 지평에서 ‘지혜의 지혜다움’

지혜는 축척된 지혜(즉, 일종의 지식) 이상으로 수용대상이나 주변 환경에 독립적으로 활용되지 않음²³⁾을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미 전 9장 1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개역개정] 전 9:11)

만일 지혜가 초환경적으로 작용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요, 지혜자들은 음식을 얻는 것이요, 명철자들과 지식인들은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재물과 은총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혜가 원리 그대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전도

23)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16집 (2010년 9월), 196-217. 차준희는 전 9:11-12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현실 사이의 모순을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208). 차준희 역시, 지혜가 지혜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소고,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42집 (2011년 12월), 57-83에서는 전통적인 지혜 가르침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허약함이 있으며, 대안적인 맥락에서 전도자는 ‘중용’을 제안한다고 언급하고 있다(65-68).

자는 관찰하고 있다.²⁴⁾

잠언 3장 14-16절은 “그[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옴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잠언의 교훈에 따르면, 지혜는 그 지혜의 사용 결과로 지혜자에게 장수와 부와 명예를 전망하게 하는 반면, 전도서 9장 11절 하반절은 지혜가 **מָוֶלֶת**(에트/시간, 시기)와 **מְצִיָּאָה**(폐가/기회)라는 불확정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음을 지적한다. 범인파 마찬가지로 지혜자 역시 시절의 변화를 미리 내다볼 수 없다. 따라서 전도서 9장 11절은 지혜의 영향력이란 주변 환경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도서 9장 13-16절은 지혜자가 자신의 행위수행 중에 맞이하게 되는 위협적인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반부(전 9:13-15)에서 전도자는 우선 지혜의 강점에 대해서 소개한다. 큰 왕이 성읍을 에워싸고 공성공격을 하려던 중, 그 성읍 중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다. 그 왕은 그의 신분이 가난하였지만 그 사람의 지혜를 주목함으로 성읍을 정복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그 지혜로움은 그 성읍에서 기억됨이 없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가 힘보다 나오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전 9:16)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비교. 잠 16:32; 21:22; 24:5; 삼하 20:15-22). 전도서 9장 13절 이하에서 지혜의 강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지혜의 효력은 ‘사회적인 지위’(즉, ‘가난’)와 관련을 맺고 있다.²⁵⁾ 이로 통해서 볼 때, 지혜가 지혜답게 발현되는 것은 지혜 자체보다는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수용자 층의 수용

24) 구자용, 윗글 (2012), 82-104. 구자용은 특별히 지혜의 한계로 죽음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지적한다.

25) 비교, Michael V. Fox, *Qohelet and His Contradictions*, 264.

능력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전도서 9장 18절에는 지혜의 강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서 익명의 한 사람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개역개정] 전 9:18)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후 이어지는 전 10장 1절²⁶⁾은 지혜의 효과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 위협당할 수 있음을 실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죽은 파리들은 제각기 기름 섞는 자의 향기름을 냄새나고 삭히게 하는도다

기름 섞는 기술자는 좋은 향기름을 생산해내기 위해 배합기술(즉, 지혜 자체)을 완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환경(즉, 지혜환경)의 청결성 여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전도서 10장 1절 상반절을 좀 더 정확히 관찰해 볼 때, - 위의 필자의 해설 2. 1). (4)에 논증된 바와 같이, - 1절 상반절은 위험요소가 있음을 주지시킴에 더하여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혜를 숙성시켜(압비아/삭히다) - 지혜다움에 이르게 함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지혜의 지혜다움’은 결론적으로 전도서 10장 1절 하반절에 정리해주고 있다.

26) Roland Murphy, *Ecclesiastes*, 99. 와이브레이(R.N. Whybray)는 전 10:1-11:6절을 “miscellaneous sayings”(잡다한 격언들)를 담은 대단락으로 나누고, 그리고 대단락 내에 전 9:13-18절을 “the limited value of wisdom”이라고 정리한다. 이와 반면, 머피(R. Murphy)는 잠언형태의 경구가 시작되는 전 9:13-10:15절을 대단락으로 “Various Applications of Wisdom”(“지혜의 다채로운 적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머피는 전 10:1절 이하 역시 지혜의 취약성이란 주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견해에서 필자와 1절 구절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지혜(와) 존귀보다도 적은 우매가 더욱 값지다

‘적은 우매’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은 지혜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지혜 사용자의 정도를 아는 절제력(자제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구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존귀)가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 ‘적은 우매’가 발생할 수 있는 지혜 주변 세계와 순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전도서의 저자는 비록 ‘적은 우매’조차도 수용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함을 권한다.

이러한 본 구절의 이해는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전 10:2-3)와도 내용적으로도 조화를 이룬다.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은 서로 만날 수 없다²⁷⁾는 것을 말하며, 우매자는 자기의 우매함만 공중 앞에 드러내고 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수용력이 부재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전 10:4) 전도서 10장 4-7절은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다루고 있는데, 자신의 말의 시기와 환경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지혜를 펼쳐야 하기에, 주권자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는 ‘공순’하게 머무를 것을 권하고 있다.²⁸⁾ 이어지는 전도서 10장 8-9절 역시, 지혜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에 의해서²⁹⁾ 무익해질 수 있는 난관들이 직업세계에 있음을 고려할 것을 격언의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적절성을 견지한 수

27) Nobert Lohfink, *Kohelet*, NEB (Echter W rzburg: Echter Verlag, 1986), 73-74.

28) T. Krüger, *Kohelet*, 323. 클뤼거에 따르면, 전 10:4은 공순함에 대당하는 **נספג**(마르페/침착함)와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라는 부분에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시민용기’(Zivilcourage)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29) M. V. Fox, *Qohelet and His Contradictions*, JSOTS 18 (Sheffield: Amond Press, 1989), 267.

용적인 태도는 전도서 10:12절의 교훈과 일맥상통한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나니

여기에서 ‘은혜로운’에 해당하는 원문은 חן(헨/호의, 호감)³⁰⁾을 뜻하는 말³¹⁾로, 지혜자의 말 뿐 아니라 그 내용들은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지혜자의 말이 효과를 거두는 반면, 우매자는 말을 하여도 그의 נִיבּוֹט(닛토티/입술들, 어법, 말씨)가 도리어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정도로 그 적절성을 상실하고 있다.

3) 위기시대의 교육구상

חָכְמָה(호크마/지혜)³²⁾는 삶을 다루는 기술인 슬기와 함께 잘 갖추어진 기술과 학문의 체계로서 지식(축적된 경험)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전문기술인력이나 전문가나 식자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어리석음’은 기술과 학식과는 멀리 떨어진 비전문가나 비식자층을 뜻하는 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³³⁾

따라서 전도자의 경험적 관찰에서 나온 “지혜(와) 존귀보다도 적은 우매가 더욱 값지도다.”라는 선언은 집중적인 교육보다는 그 교육의 효과가 펼쳐져야 할 장으로 시선을 옮겨주고 있다. 즉 일부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intensive Erziehung)³⁴⁾이 아니라, 수용자

30) HALAT, 319.

31) M. V. Fox, *Qohelet and His Contradictions*, 267; “The words of a wise man’s mouth bring him favor”.

32) Melanie Köhlmoos, “Weisheit/Weisheitsliteratur II”, in *TRE* 35 (2003), 486ff.; M. Soebø, “חָכְמָה km weise sein,” in *THAT* 1 (“2004), 557–567.

33) N. Lofink, *Kohelet*, 73–74; T. Krüger, *Kohelet*, 320–321.

34) M.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r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 des. 2. Jh. s v. Chr.* (Tübingen: Mohr, 1988), 146f. 하스모니아와 왕가 시절 바리새인들의 교육개념은 전 민족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훈육’이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문화권의 사정은 이와는 달랐다. 특별히, 플라톤은 그의 책 『폴리테이아』(Politeia)에서 ‘엘리트층의 교육

층이나 지식적용 환경을 염두 한 ‘확대적인 교육’(Breiten-Bildung)³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³⁶⁾ ‘한 사람의 그릇된 과오가 많은 (공공)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전 9:18) -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것이나 단 한 사람의 과오로도 무너질 수 있으므로 지혜 그 자체로서는 허약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엘리트 양성에 역점을 두는 ‘집약적인 교육’은 지혜의 효과가 사회적인 환경과 수용자의 외적인 환경에 의존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적인 실효성이 적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럼으로 전도자는 지혜(지식)는 자신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 최적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지혜(와) 존귀보다도 적은 우매가 더욱 값지다.’

이러한 전도자의 지혜의 말을 경청해 볼 때, 성공과 성과위주의 과다 경쟁체제의 우리 사회의 상황(‘1. 들어가는 말’ 참조)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오늘날 우리사회에 편만한 지혜의 ‘자기 극대화 작업’ - 예를 들어, 성적과 학력, 자격증 지상주의 - 은 지혜(지식)의 적응성과 효용성 보다는 지혜(지식) 자체에 편중한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전도서 10장 1절의 메시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혜의 성공여부는 단지 지혜의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적절성’(adequateness)이 관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위한 교육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식(기술)에 맞는 현장을 찾기보다는 현장을 이해하는 지식(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름 섞는 자’(‘전문기술인’ 또는 ‘지식인’)가 잘 가공해 내놓은 ‘향기름’(결과물, 성과, 실적)이라 할지라도 죽은 과리들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둘러싼, 즉 작업자를 둘러싼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F. Ricken, *Philosophie der Antike* (Stuttgart: Kohlhammer, 1993), 96ff.)

35) T. Krüger, *Kohélet*, 320.

36) 비교, T. Krüger, *Kohélet*, 323,376.

- 환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 못지않게 그러한 고급지식이 적당한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작업성과를 보존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전도서 10장 1절에 전개된 논거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권력구조에서 더욱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 한 나라의 주권은 투표를 통해 권력위임을 행사하는 국민에게 있다. 민주적인 정치 안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능력이 국민에게 놓여있다면, 교육은 국민들의 선택과정이 '책임성' 있고 그들의 권리행사 행위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 되도록 주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 사회에서는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와 목표와 수단들에 관한 소통이 필요한데, 이러한 소통의 문화는 지식 엘리트를 지향하는 '집중교육'보다는 국민적인 책임을 기초한 '교양적인 국민교육'을 통해서 이룩된다 할 수 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활동을 구현하는 사람이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개역개정] 전 12:11)

마지막으로, 위기사회의 교육은 '적은 우매'를 아우르며 극복할 줄 아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혜(와) 존귀보다도 적은 우매가 더욱 값지다!' - 우리는 '지혜(지식)=존귀(사회적 성공)'라는 도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성공이나 성과지향주의는 과잉경쟁구조를 낳고,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중심주의적 생각과 위기사회 안에서의 개인행복만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만 남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는 냉각되고 소통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사회전체를 경직되게 만든다. 위기의 시대에 지식인들에게 '적은 우매'는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명나라 때 시인 이몽양(李夢陽)(호: 공동자(空同子))이 남긴 명언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³⁷⁾ ‘자고무비’(自高無卑) - ‘자기만 높다 하면 아랫사람이 없고’, ‘무비즉위’(無卑則危) - ‘아랫사람이 없으면 위험하다’. ‘자대무중’(自大無衆) - ‘자기만 크다 하면 대중이 따르지 않고’, ‘무중즉고’(無衆則孤) - ‘대중이 따르지 않으면 고립된다’.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전도서 10장 1절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며 그 연구 결과에서 도출해낸 교훈을 현대적인 메시지로 재생하여 보았다. 어려울 때 일수록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며, ‘지혜(지식)’=‘존귀(영화)’라는 굳어진 도식에서 벗어나 ‘적은 우매’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다운 면모가 필요하다. 이것이 위기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혜의 지혜다움의 모습이 아닐까? 위기의 때일수록 지혜는 환경과 조화하는 적절성과 절제력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이몽양”,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0709437857033&outlink=1>

“동백기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48487>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3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0709437857033&outlink=1>

-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43집 (2012년 3월), 82-104.
-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의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 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281-308.
- 페이지 H. 켈리, 「성경히브리어」 (류근상 옮김),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10), 7. 원제는 Page H. Kalley, *An Introductory Grammar, Biblical Hebrew*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92).
- 차준희, “무덤에서 나온 지혜: 전 9장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16집 (2010년 9월), 196-217.
- _____, “전통적 지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전도서 7장의 주석과 신학적 메시지”, 「구약논단」 42집 (2011년 12월), 57-83.
- Bartelmus, Rüdiger,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Mit einem Anhang Biblische Aramäisch*, (Zürich: Theol. Verl., 1994), 105-106.
- Crenshaw, James L., *Ecclesiastes*,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49-51.
- Dalman, Gustav H., *Aramäisch-Neuhebräisches Handwörterbuch zu Targum, Talmud und Midrasch*, Göttingen³1938, 186f.; M. Jastrow (ed.), *A Dictionary of the Tarmumim, the Talmud Babli et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Boorklyn: NY 1903), 392f.
- Elliger, K./Rudolph, W.,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41990).
- Fox, M. V., *Qohelet and His Contradictions*, JSOTS 18 (Sheffield: Amond Press, 1989).

- Gryson, R./Fischer B./Frede, H. I.(ed.), *Biblia sacra: Vulgata* (Latein) (Stuttgart: Deutsche Biblegesellschaft, 52015).
- Jenni, Ernst, “Faktiv und Kausativ von אבך zugrunde gehen”, Jenni Ernst (ed.), *Studien zur Sprachwelt des Alten Testaments I* (Stuttgart: Kohlhammer, 1997), 11–24.
- Hengel, Martin,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r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 des 2.Jh.s v. Chr.* (Tübingen: Mohr, 1988).
- Kautzsch, Emil, *Wilhelm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Leipzig: Vogel, 281909).
- Kittel, Rudolf, *Biblica Hebraica Kittel II* (Stuttgart: Bibelanstalt, 1952).
- Koehler, L./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I* (Leiden: Brill, 32004).
- Köhlmoos, Melanie, “Weisheit/Weisheitsliteratur II”, in *TRE* 35(2003), 486ff.
- Krüger, Thomas., *Kritische Weisheit: Studien zur weisheitlichen Traditionskritik im Alten Testament* (Zürich: Pano–Verg., 1997), 173–194.
- _____, *Kohelet (Prediger)*, BK XIX Sonderban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319–320.
- Lohfink, Nobert, *Kohelet*, NEB (Echter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 Murphy, Roland, *Ecclesiastes*, WBC 23A (Dallas: Word Books, 1992).
- Oh, Minsu, *Sprachliche Gestaltung und Semantik–Untersuchungen zu den biblischen Büchern Proverbien und Kohelet*, Kieler

- Theologische Reihe (Münster: LIT, 2014), 13–14.
- Tov, Immanuel, Der Text der Hebräishcen Bibel. Handbuch der Textkritik (Stuttgart: Kohlhammer, 1992), 193.195.198.
- Ralfs, Adolf/Hahnhart, Robert,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 Ricken, Friedo, Philosophie der Antike (Stuttgart: Kohlhammer, 1993).
- Ringren, H./Zimmerli, W., Sprüche/Prediger (ATD 16/1), Göttingen 31980, 225.
- Schwertner, Siegfried M., Internationales Abkürzungsverzeichnis für Theologie und Grenzgebiete (Berlin: de Gruyter, 2019).
- Schwienhorst–Schönberger, Ludger, Kohelet, HThKAT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2004), 483.
- Seow, Cheun–Leong,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entary, AB 18C (London: Yale University, 2008).
- SoebØ, M., “חכּם hkm weise sein,” in THAT I (62004), 557–567.

검색어

지혜

교육

민주사회

동사구문론

의미론

www.kci.go.kr

Interpretation on Eccl 10:1 and his today's Messages Social Crisis and Wisdom

Minsu Oh

Lecturer at Daeshin Theological Seminary

Kiel University, Dr. theol.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on Ecclesiastes 10:1 to today's educational situation. For this purpose, the writer first observes the interpretations of the text. In view of the morphology of the MT, he compares the consonantal text with the LXX, the Vulgate, and modern Bible translations, as well as authorized Korean Bible translations. The writer directs his attention to various readings of the masoretic consonants in the verse. These result in differentiable understandings of the verse. To perceive the deep meaning of this difficult passage, he employs the knowledges of the verbal syntax and semasiology of the classical Hebrew and thus shows that the passage is about the professional field of perfumery. In the opinion of the writer, verse 1a points semantically to a potentiality of the risk that dead flies would make a perfumer's oil stink. So the verse 1a has an instructive and warning character. In correspondence with it, verse 1b recommends a consideration of a little foolishness is more precious than wisdom and honor. For that reason the wiser (or technicians and scholars) should direct their attention to the indefinite situations of the worker's fields, where wisdom should effect its purpose. For wisdom (or knowledges and technics) is indeed very

www.kci.go.kr

useful for workers, but it does not guarantee its users to achieve success. This insight illuminates today's tendency of the educational concept which is focused on quantitative multiplication of knowledges. Therefore, firstly, Ecclesiastes 10:1 suggests an educational concept of the employment of wisdom adequate to the situations and its usefulnes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take interest in the sphere of wisdom's activity, that is, the worker's fields, which may be an important factor to the preservation of knowledges and technics. Lastly, in democratic social structure one needs general education for the people based on responsibilities, because they confide their rights to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decision making in the education-political issues. In conclusion, this study represents an alternative and suitable wisdom in the society of today.

Keywords

wisdom

education

democratical society

verbalsyntax

semantic

■ 투고일: 2017년 1월 5일

■ 심사일: 2017년 2월 14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14일

www.kci.go.kr